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유다서
역대상
구역예배 · 빌립보서
남성구역예배 · 고린도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유다서
역대상
구역예배 · 빌립보서
남성구역예배 · 고린도전서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뜨거운 7월의 햇볕이 우리의 몸을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름입니다. 그 열기들은 마치 세상의 도전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육체의 안일함에 내어주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 낮에도 영혼을 구하려고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요4:7).

2천년 전에 인생을 불드시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의 은혜가 유다서와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1:21).

천지의 대주재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가득 내려주소서!

2000년 7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유다서 서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라고 자칭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배반자 가룟 유다가 아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요7:5),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형을 주(主)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다. 유다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거짓된 사상들과 재림 전에 있게 될 배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1:4).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함을 유지하는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해 기록하고 있다. 유다서의 기록연대는 대략 주후 76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심 메시지는 3절 하반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주요내용

- 유1:1-2 위로를 위한 편지
- 유1:3-4 도전을 위한 편지
- 유1:5-7 상기시키는 편지
- 유1:8-13 무지하여 용감한 자들
- 유1:14-16 심판
- 유1:17-21 두 종류의 삶
- 유1:22-25 넉넉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

요즘은 '편지의 설렘' 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전화와 이동 통신과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뿐더러,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간편한 수단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확보의식이 편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거짓교사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수신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긍휼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부르고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 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 그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 로 묘사하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이라고 부연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 부르신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입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영원한 그 사랑에 의해 고난 속에서도 풍족한 은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로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므로 방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힘이 넘치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저를 누군가를 위한 위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편지’라는 말에는 따뜻한 향수가 배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로와 격려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은 ‘도전을 위한 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상대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편지의 수신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들의 심령에 거룩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을 가합니다. 그가 도전하는 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써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시에 횡행하던 ‘거짓교사들’의 은밀한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로 불렸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지성적 조건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으로, 영이 구원을 얻었다면, 육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므로 방종한 삶이라는 것이 구원을 멸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결과 사람들의 방탕과 타락을 조장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의 아류들’이 꾸준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들의 영과 육 모두를 위한 구원이었으나, 이러한 자들은 지나치게 영적 차원만을 강조함으로, 반쪽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 중 대표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우리를 향한 도전의 편지를 받으십시오.

말씀에 기초한 뼈아픈 충고와 도전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말씀으로 도전 받고 또 도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를 쑥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었는가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같은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끓어오르는 연민과 긍휼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과거를 한번쯤 회상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도전과 그 은총과 그 감격과 그 경교가 바로 오늘의 것이 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키되, 이스라엘을 붙잡고 내보내지 않던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 교만하여 자신의 지위를 버린 천사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음란과 방탕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욕육에 방치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은 오늘의 삶을 위한 '거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편지를 보낼 수 있어야겠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도 제목 / ① 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무식하면 용감하다’ 고 합니다. 멋모르고 일할 때에는 좌충우돌하면서 용감하게 돌진했지만, 알 것을 알게되고,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게되면 그제야 진정한 용감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꿈꾸는 자들’ 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한 계시 환상을 보았다는 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가득한 것은 창조주의 불완전함 때문이라고 핑계하였습니다. 이들은 창조주는 신들 중 열등한 신, 등급이 낮은 신이라고 평하 하였습니다. 창조계, 곧 물질과 관계하지 않는 신만이 고상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순전히 인간들의 자의적인 명상과 철학에 근거한 것일 뿐 영원한 계시의 말씀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을 뉘엿뉘엿하는 자들,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조롱 어린 칭호를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무식하면 용감한 원리가 통용되곤 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율법적 확신에 들떠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 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무지하여 용감한 불행에서 벗어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한 걸음 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 이는 유대교의 문서 중 예녹서를 인용하여 무지한 거짓교사들의 오류를 들추어 비난하고 있습니다(15절). 15절 말씀은 다소 복잡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하여 이해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불경건함, 곧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를 인간적인 욕심과 방탕으로 메우려는 욕심으로 인해 심판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입니다(16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자신을 정욕에 방치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면서 동시에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백성들,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을 늘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 그리스도안에 더욱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를 사랑하는 열매가 오늘 저의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딤후 3:1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궁하며 교만하며 궤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한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경건함 없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또한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삶을 살면서 고통을 주는 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떨습니까? 그들은 성령은 없는 자라고 칭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에 거함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마치 젖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평온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서서 영생을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3:15).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할 신앙의 건축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곳을 피해서 나온 롯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롯은 그 성안에 유하고 있다가 겨우 몸이 빠져 나오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롯에 가깝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어두움을 책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처해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백성으로 세상을 따라 살다가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죄를 버리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릴 때 동지라는 말을 사용하면 빨갱이를 연상했습니다. 일체감을 가지지 않고는 조직을 유지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과정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14절까지는 다윗 왕을 도와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첫 번째 3인(야소브암, 엘르아살, 삼마, 삼하23:11)에 대해서 언급하고, 15-25절까지는 처음 3인 보다는 못하지만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번째 3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37절에서는 군중의 큰 용사 즉, 힘이 강한 용감한 장수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가지각색의 벽돌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벽돌인가하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역할 수행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 동지애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동지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1-22절)과 이후(23-40)에 그를 추종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에게 와서 협력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1-7절까지는 사울 왕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나아 온 것에 대해서, 8-15절까지는 다윗이 망명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요단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후원하였던 갓 지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8절까지는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가,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족 출신의 왕인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귀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간 것은 다윗 왕국의 정통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왕국에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정통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국이었기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편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통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편법으로 세워진 왕국은 무너지는 법이고, 정통성과 명분 위에 세워진 왕국은 사람들이 찾아들게 되는 법입니다.

편법을 버리고 정통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정통성을 상실한 번성이나 전통을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간직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나누어 본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누리는 시간 보다 오히려 슬픔이라는 감정을 맛보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40절에 나타난 다윗과 그의 왕국에 있었던 희락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은 얼마나 그림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과 그의 왕국에 찾아들었던 희락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감정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19-22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블레셋 땅으로부터 추방당할 때 도움이 되었던 므낫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의 싸움에는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23-37절까지는 사울이 죽고 난 후 헤브론으로 운집한 지지세력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왕국이 자리 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울의 추종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34만이라는 작은 왕국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참된 희락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들이 연합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창작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은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는 참된 희락을 창조하십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일 때 누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희락을 베푸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히 여기고 있는 단어군(群)들이 있습니다. 비전, 성취, 열정, 헌신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웠던 세월들이 평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슴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사울 때에 저버렸던 하나님의 뜻에 관한 관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약에 근거한 왕국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1-4절에서 온 백성들의 호응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후 온 백성들과 함께 왕이 친히 기랴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쁨이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5-8).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찰나였습니다. 이때 옷사가 재빠르게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사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두려움에 싸이게 되었고, 결국 언약궤를 오벤에돔의 집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벤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옷사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새 수레 보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소중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을 깨닫고 섬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지혜 있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2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다는 소식은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블레셋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침공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10절). 사울과는 대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13:3). 결국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다시” 침공하고 있습니다(13). 이때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14). 그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였습니다.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고, 다윗의 명성은 확산되어 갔고, 주변국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의 주도권은 인간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습성들이 몸에 베어있습니까? 다윗의 승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고 계십니다(15).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서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 물어” “이에”(11, 16)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승리하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대장 예수를 앞장 세워 싸워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나의 앞에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역 대상 15장은 불경건하게 옷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즉사한 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잠시 보류된 이래(13:9-14), 재차 언약궤의 이전이 시도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1차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1)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 처소를 왕궁 안에 마련하는 장면(1절)과, (2)하나님의 궤를 오직 그릇 자손과 그 밖의 레위 자손을 불러들이는 대목(2-10절), 그리고 (3)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키 위하여 몸을 성결케 하라고 명하는 광경(11-15)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였는가? 우선 다윗왕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왕궁을 건설할 때 처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왕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 그였기에 다윗은 자신의 왕궁만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그의 관심은 이후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심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삼하7:2).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을 기억하여(역사 의식) 오늘 삶의 삶에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영위해야겠습니다.

역사 의식, 성결한 삶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두 번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은 (1)찬양대를 지휘하는 악사들을 언급한 전반부 (16-21절)와, (2)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기록한 후반부(22-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이 특별히 구별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합의하에 이 성스러운 일이 이루어졌고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의 봉사로 인하여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은사를 이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연주하는 재능을, 어떤 이는 하나님의 궤의 운반에 관한 율법조항에 밝은 재능을, 어떤 이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재능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각기 성실하게 발휘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은 훌륭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1)하나님의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은사들(사랑, 믿음, 섬김....)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각자의 성실한 봉사들이 교회를 머리로 해서 합해질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지체들이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궤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모습(1-3절)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영구히 찬송을 드리기 위해 찬양대를 임명하는 장면(4-6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백성은 오로지 그의 은혜와 은총에 감격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드림과 더불어 찬양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다윗의 감사 노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이스라엘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라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내용인 전반부(7-22절)와 (2)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방 나라들은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라는 권면을 담은 중반부(22-33절), 그리고 (3)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인 후반부(34-3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에 나타난 특성을 보면 (1)찬양에서 시작하여 찬양을 끝냅니다. (2)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회고합니다. (3)하나님의 왕권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에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으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다윗 왕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와 은총에 감격하여 헌신하며 찬양케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 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왕은 찬송에 남다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찬송을 잘하기로 유명한 자였는데 예루살렘에 아삽과 그의 찬양대를, 기브온에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찬양대를 임명하여 명실공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로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찬송에 대해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음악이라는 예술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그의 영광을 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A.D.633년경 열렸던 툴레도 종교회의에서 찬송은 하나님(Deity)과 노래(Canticum)와 높이(Caudem)의 3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을 살펴봅시다. (1)찬송의 능력과 효력: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마음이 밝아지며, 고난을 이기며, 그의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찬송의 때: 하루라도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악사들을 성막 양쪽에 배치하여 날마다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3)찬송의 장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입니다. 성전에서, 회막 앞에서, 군대 앞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열방 중에서, 교회 중에서, 침상에서,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찬송의 자세 및 방법: 악기를 사용하며, 박수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찬송하며, 즐거운 소리를 지름으로 찬송하며, 영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송하며, 시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5)찬송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며, 찬송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신전의식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전인격적으로 찬송케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보다 자신의 거주지가 더 화려하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 즉,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최우선을 두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과 성전된 자신의 몸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단은 다윗 시대의 예언가로서 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심중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다윗왕, 그리고 자신보다 주의 종과 왕국의 번영을 위해 간언한 선지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사회와 교회에 이 두 사람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희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윗이 일개 목동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의 위치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특히 12절을 주의 깊게 봅시다. 이 구절은 일차적으로 솔로몬에게 해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삼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일으키셨으며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으로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장
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
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하
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셨으며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동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서
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진실
로 그에게 감사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
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
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하시겠다는 축복의 음성
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음성을 듣고 계십니
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놀랍게
축복하셨고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음성을...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루
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후에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블래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모압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하였습니다. 소바 왕 하닷에셀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이 소바왕을 도우러 온 아람의 군대를 쳤습니다. 아람사람들은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연전 연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용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훌륭한 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편20:7)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맛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맛왕 도우와 소바왕 하닷에셀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적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시로 여러 가지 금과 동과 은으로 만든 귀한 그릇을 다윗에게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귀한 금과 은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고 즉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꼭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신4:9) 우리들은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승리를,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 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에 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다윗 왕은 진심으로 조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의도를 곡해한 방백들이 이제 그 부친의 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하눈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다윗이 조문하는 이유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암몬을 정탐하여 기회가 주어지면 침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윗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가감 없이 받아들인 암몬의 왕 하눈은 다윗왕이 조문사절로 보낸 그의 신하들을 옥을 보였습니다.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암몬사람 뿐만 아니라 아람사람들 까지 이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암몬과 아람사람들의 성들은 파괴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암몬사람에게 보냈지만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잘못 판단할 때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지혜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은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옵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몬 자손은 다윗의 군대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가 큰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성들은 철저히 파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옥을 당하며 백성들도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승리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어지는 블레셋사람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장대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도 거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도 키가 보통사람보다 월등하게 큰 거인과 싸움이 있을 때에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이겼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현대전 즉 첨단 무기가 있는 이 시대에도 군인들의 신체조건이 전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대에 신체조건이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전쟁에 있어서 강자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싸운 블레셋 사람인 이 장대한 사람들은 전쟁에 강자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용사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의 강자들을 이기고 승리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의 강자를 이기고 승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약자를 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다윗이 보였던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한 그의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함으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과 승리의 기반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던 그의 신앙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백성의 수를 계수 함으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힘의 근원이 된다는 절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마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절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올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분만을 나의 능력, 나의 구원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우리들을 변질시켜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富(부)등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좋은 상황에 있거나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이 주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의 능력의 근원으로 알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했던 인구조사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인간적인 동기에 의하여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질고가 있습니다(롬2:9).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칼을 들고 가리키고 있는 여호와와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한 이는 자신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이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갈보리의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지시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비록 다윗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지시하심을 받게 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밋세바입니다. 그러한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요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순종할 일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의 선택이요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여호와와의 전을 만들 모든 물질들은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모든 환난 가운데 준비된 것입니다.(대상22:14) 금과 은을 준비하였습니다. 놋과 철을 준비하였습니다.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에서 일하며 섬길 사람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여호와와의 전과 뜰과 골방을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제물 곧 무교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을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같은 일들 중에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어떤 자리에서 섬기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무교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반죽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죽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냄비에 지지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의 모양이 그것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그 일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불러주셨든지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재 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잘못할 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평을 하게 되고 공동체의 일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의 수행이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되게 함으로서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인원수에 비례하여 엘르아살의 자손에게 16, 이다말의 자손에게 8반열, 그리하여 24반열로 나누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도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맡겼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도 이와 같이 제비뽑아 직무를 맡겼다. 이 원칙은 아주 유용하여 훗날 신약시대에 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합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봉사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내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중 현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라고들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사를 암기하여 찬양하기도 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은 절로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찬양이 가장 살아있던 시대는 아마 다윗 왕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 왕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찬양대로 봉사할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찬양에 필요한 악기인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24반차로 나누어 직무대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노래가 아닌 신령한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288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다면 찬송을 배워 익숙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은 이렇게 특별히 찬양대만 찬양해야 할까요? 사43:21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송 생활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감사의 찬양을 하게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이들이 성전과 성전 곳간의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질서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직무를 따라 24 반차로 나누었습니다. 전체 문지기 수는 4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가 93명이었고, 그 중에서 24명을 총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질서있게 하나님의 전에서의 봉사 업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문지기의 일은 우리교회의 봉사업무 중에 예배 안내와 찬양 봉사와 교회관리의 업무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들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말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이런 봉사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 왕은 시84:10에서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봉사를 기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교회를 섬기는데 있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나 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나 혼자 그 일을 다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일을 나누어 분담하는 스타일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일을 자신이 모두 다 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적제 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고 공평하고 지혜롭게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군대의 정비도 그러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찬양대와 문지기의 직무를 각각 분담시켰을 뿐 아니라, 군대도 12개 반으로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었고 288,000명의 군대 중에서 24,000명씩 12반열로 편성하여 각각 반장을 세웠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1개월씩 순번으로 봉사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군처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2개 지파를 따라 12장관을 세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혼자 독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사람을 뽑아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왕의 내각을 조직하는 것까지 일군을 고루 등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서로 분담하면서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엡2:21-22, 4:16).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여 일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죽을 때라고들 합니다. 특히 유언을 할 때는 그의 평생의 소망이 담겨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유언한다면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한 것이 한가지 있었으니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는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꼭 유언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 하셨고, 내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였으니 함께 협력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여호와와 그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이 부요해지며 유명하게 잘 되는 것도 좋겠지요. 그보다 더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와 내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 제목 / ① 내 영혼의 영원한 처소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② 6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7월 한 달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서론

빌립보서는 고난 중에서 기쁨을 전하는 편지이다. 이 서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은 환경이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아니다. 만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이 현실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서신서는 우리를 기만하는 아주 고약한 문서이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그의 환경이나 삶의 여건은 아주 형편없다. 어둡고 컴컴한 감옥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이 그의 몸 속으로 스며들고, 영양가 없는 식사는 그의 몸을 더욱 더 연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가 그의 영혼을 흔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기쁨은 결코 환경이나 삶의 여건의 만족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빌립보는 마게도냐(현재 그리스) 지방에 위치한 로마 영토였다. 온천과 금광으로 유명한 지중해로부터 약 13Km 떨어져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 주전360년경 마게도냐의 빌립2세(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웠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사실 빌립보에 산다는 것은 수도 로마에 사는 것과 동일하였는데 그들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토지세와 인두세를 면제받았고 정부 조직도 로마를 모델로 삼았던 곳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다.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행16:9)을 통해 이 지역을 전도대상지로 삼게 되었다. 네압볼리를 지나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의 식구들이 함께 개종하였다. 또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고 난 후, 수입에 손상을 입은

주인을 격분시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곳이다. 그러나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기쁨이요 면류관”처럼 느껴졌던 교회이다(빌4:1).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①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선물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②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전히 기쁨을 잃지 말 것 ③빌립보 성도들의 충성스런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빌립보서의 기본구성

1:1,2 인사

1:3-11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1:12-30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함

2:1-11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2:12-18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2:19-30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3:1-11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3:12-4: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4:2-9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된 삶

4:10-23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족과 신뢰

제 1 과: 빌립보서 (1)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찬 송 / 278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3-11

먼저 읽기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맺는 혈연관계, 동료들끼리 맺는 친구 관계, 이성으로 맺는 연인 관계 등등!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때가 되면 깨어져버립니다. 죽음이란 권세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욱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었던 바울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애정을 가지고 섬기고 돕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후에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함께 본문 생각하기

[3절에서 6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

1.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① 그들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3절) -
②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타나는 반응(4절) -
2.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제”란 어떤 뜻입니까?
① 이유(5절) -
② 교제(partnership)의 의미(참고, 빌4:14,15) -
3.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서 이루실 “착한 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① 확신하는 것(6절) -
② 착한 일(참고, 빌2:12,13) -

[7절에서 8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표현

4.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바울의 애정 표현(7절b, 8절a) -
5.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7절c(참고, 행16:22-24) -

[9절에서 11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내용

6.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9절 -
- ②10절a -
- ③10절b -
- ④11절a -

7.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11절b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바울의 편지는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향한 영적인 지도자의 격려는 언제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글은 어떤 마음이 생기게 했습니까? 또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의 글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2.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 표현은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등의 표현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

적인 교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러한 실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겐 바울과 같이 참된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바울처럼 영혼들에게 참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3.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는 아주 간절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당신에겐 당신의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과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지금 서로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가 동안 중보 기도하는 일은 어떨까요?

제 2 과: 빌립보서 (2)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찬 송 / 507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11

먼저 읽기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에게서 지도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신 참다운 영적인 지도자이시기도 했습니다. 영혼을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신 참다운 지도자로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력을 배우실 것입니다. 성경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닮는 모습이 회복되기실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1.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빌 1:29) 감당하려면 먼저 각자 개인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할 은혜(1절a) -

② 성령께 받아야 할 은혜(1절b) -

2. 바울은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의 공 동체를 위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습니까?

① 2절 -

② 3절b -

③ 4절a -

3.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피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

4.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① 4절 -

5.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6절에서 8절에 걸쳐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한 사람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

① 6절a -

② 6절b -

③ 7절a -

④ 7절b -

⑤ 8절a -

⑥ 8절b -

6.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신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② 8절b -

[9절에서 11절] 그리스도는 참된 영적 지도자

7.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① 9절a -

② 9절b -

8.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다고 말합니까?

① 10절b -

② 11절a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며 기꺼이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을 공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기쁨대신 불평과 불신을 쏟아낼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배부시는 은혜는 고통의 순간을 기쁨으로 지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2.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에도 겸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결국은 높아지기 위해 쌓는 덕목일 뿐입니다. 즉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겸손이란 어떤 것일까요?(눅 9:23). 참된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때 생기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높아질 때 기쁨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3. 목적없이 항해하는 배는 언젠가는 침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그 뜻이 고통일지라도 말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삶의 방법도 결정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의 목적과 방법이 일치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서서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목적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3 과: 빌립보서 (3)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찬 송 / 97장
읽을 말씀 / 3장
공부할 말씀 / 3:2-11

먼저 읽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 철저한 가치관과 중요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고수하는 가정 속에서 자랐고, 그 역시 율법을 철저하게 습득했으며, 모든 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포기할 만큼 매력적이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이 회심 전과 철저하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만일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2절에서 6절] 그리스도인들이 삼가야 할 것들

1.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삼가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2절a -
2절b -
2절c -
2. 바울은 삼가야 할 것들 대신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3절a -
3절b -
3절c -
3. 바울의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5절 -
6절 -

[7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할 것

4. 바울은 자신의 경력과 배경을 다 해로 여기며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b -
8절b -
8절d -
9절a -
5. 바울은 지금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율법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b -

9절b -

6.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하는 것 3가지(10절a) -

추구하기 원하는 것 1가지(11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자신의 배경과 경력을 자랑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할 때도 이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경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있는 분인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배경이나 경력을 자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 처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버리셨습니까?
2. 이번에는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에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 분량과 수준은 너무나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유행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때에 율법은 시대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때문입니까?

3.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은 그의 일꾼이며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주재권(主宰權)과 우선 순위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재정, 시간, 활동 등)이 있다면 주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 4 과: 빌립보서 (4)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된 삶

찬 송 / 469장
읽을 말씀 / 4장
공부할 말씀 / 4:4-13

먼저 읽기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굳게 닫힌 철문과 쇠창살을 바라보며 자포자기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쇠창살 너머에 있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 누린 참된 평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매맞은 상처로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견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평강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4절에서 7절] 참된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

1. 바울은 믿는 자의 기쁨에 대하여 제한과 조건을 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a -

2. 바울이 6절에 기록한 '염려' 라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7절 -

3. 바울은 '평강' 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평강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b -

7절b -

[8절에서 9절] 참된 평강은 믿음의 일을 추구할 때 생기는 것

5. 바울은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대신하여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8절 -

6.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9절b -

[10절에서 13절]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

7.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자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12절 -

8. 바울은 자족함이 믿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세상에는 염려해야 할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상관 없이 똑같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봄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능력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도전이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 편입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바울은 자신이 참된 평강을 두 가지 면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길이고(6,7절),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므로 세상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9절).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의 영혼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
3.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 가운데 한 가지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샬롬!”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강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평안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이 심한지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추구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3 과

그리스도인의 자기점검

찬 송 / 507장

읽을 말씀 / 고전10:31-33

공부할 말씀 / 고전10:31-33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의 말년을 보내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된 인생의 길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을 향해서만 질주하다가 40대초반이나 중반에 횡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영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엠펙1:1-2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 바울 사도는 항상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있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또는 평강 가운데 있는지가 당신의 가장 큰 관심사인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요.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혹시 당신 자신이 은혜와 평강가운데 있는가 보다는 자신의 사업의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이 관심의 우선순위는 아닌지요?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 속의 사랑, 평강: 은혜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

엠펙4:28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 당신이 일하는 동기에 미치는 어떤 도전이 있는지요.

마6:9-10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6: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나라이 임하기를 위하여,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아버지의 이름 보다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세워 가는 데, 아버지의 뜻 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고전10:31-33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10: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4. 본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다음과 같은 질문 즉 1)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2)그것이 사람들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넘어뜨리는 일인가? 3)자기의 유익만을 위하는가? 다른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가? 4)그 일을 통해서 구원

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와같은 질문에 어떤 답을 줄 수 있는가를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당신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더더욱 이와같은 기준에 비추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당신의 삶에 대한 중간점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자기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향하여 주셨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